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141>

JCCT 2024-3-18

글로벌 시대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

Banal Racism in the Global Era

박주은*

Joo Eun Park*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인종주의의 정의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신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 사례를 찾아 일상생활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살펴보았다.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흑인 여성들이 겪는 인종차별을 나타내었고 이 인종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종차별은 증가했으며,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상적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주의가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인종주의, 신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 영화 《히든 피겨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racism,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neo-racism, and to find solutions to racial discrimination. Specifically, we looked for cases of banal racism that appeared in the global era and looked at the racism that is prevalent in everyday life. The American film 《Hidden Figures》 is based on a true story and depicts the racism experienced by black women, and this racism is prevalent around the world as it appears in everyday life. In particular, racial discrimination has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acial discrimination continues even after the pandemic. Therefore, a solution to overcome everyday racism was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at habitual and unconscious racism can be physical and mental violence for people suffering from racial discrimination.

Key words : Racism, Neo-racism, Banal racism, Film 《Hidden Figures》

1. 서론

인종주의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모습의

신인종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1]. 이 신인종주의는 에세드(Essed)가 만든 ‘일상적 인종주의’라고 칭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정착되어 있다 [2]. 특히 2019년 12월 중국

*정희원,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정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3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4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5일

Received: December 30, 2023 / Revised: February 1, 2024
Accepted: February 15, 2024
*Corresponding Author: pjepark@smu.ac.kr
Dept. of English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Korea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인종차별은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화되었다. 이 인종차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신인종주의를 고찰할 것이다. 첫째, 인종주의의 정의와 편견과 차별, 둘째, 신인종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에 나타난 인종차별의 모습 [3],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

1.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일상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고, 우리는 인종에 위계가 있어서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교육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인종차별 장면을 목격하거나 실제로 인종차별 경험을 한 경우도 있다.

인종주의는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인종주의는 인종 사이에 유전적 우열이 있다고 간주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는 인간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인간을 멸시하고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1]. 이 인종주의는 편견에서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위인 차별로 나타난다.

편견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되며,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정의한다 [4][5]. 이 정의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배 집단의 일원이 피지배 집단 일원에게 행하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위를 뜻한다. 이 차별은 편견의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 징후를 구성하는데 비록 의도하지 않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의 스펙트럼을 전달한다 [6]. 이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을 동반하는 인종주의는 이방인을 부도덕하고 무지하고 방탕하며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리스인의 인식부터 출발하여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려고 흑인을 노예로 잡아갔다. 인종주의는 흑인은 열등한 존재이므로 노예로 삼아도 괜찮다는 근거를 제공했고 과거와 달리 종교는 인종주의의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1]. 이 인종주의는 19세기 말기에 만들어진 시대적인 소명을 일으켜 보려는 미국 역사학의 애국주의에서 나타나 노예제도가 정당화된 것이다 [7]. 한 마디로 인종주의는 유럽 근대의 탄생 및 부상과 더불어 등장한 다분히 근대적인 현상이고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흑인 노예제가 상징하는 백인의 세계사적 착취와 지배를 공공히 하는 정치체제이자 권력구조이다 [8]. 이 인종주의는 21세기의 신인종주의로 변모한다.

2. 신인종주의

신인종주의는 유럽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주민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공공 재화가 낭비되고 있다며 선동하는 인종주의이다. 이는 피부색이나 유전적 차이보다 문화적 특색과 차이에 주목하고,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9].

한마디로 신인종주의는 유전적 특성보다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차이를 낳는다. 이 신인종주의는 인종 대신 특정 집단의 언어, 종교나 문화, 의식주, 습관 등 문화적 기표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한다 [10]. 이 신인종주의를 발리바르(Balibar)는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극복성이 지배적인 주제인 인종주의라고 주장한다 [11]. 이와 같이 문화 차이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신인종주의의 특성은 일상적 인종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일상적 인종주의는 일상의 영역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되는 언어, 감정, 그리고 규범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이다 [9].

이 일상적 인종주의는 구분 짓기, 본질화, 문제화의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 구분 짓기는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구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선입관을 형성한다. 둘째, 본질화는 특정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대상의 통제와 관리와 육성을 통하여 실천된다. 셋째,

문제화는 특정 대상을 문제의 원인자 관리해야 하는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9]. 이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모습의 일상적 인종주의로 나타난다.

본 연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에 나타난 인종차별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3]. 이 영화는 세 명의 흑인 여성들이 세상의 편견과 인종차별에 정면 돌파하여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인종의 평등과 남녀의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 둘째, 2020년 이후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상적 인종주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가 2019년 11월에 시작하여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해 2월 중순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여 일상적 인종차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III.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일상적 인종주의

1. 영화 《히든 피겨스》에 나타난 인종주의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2016년 미국에서 제작되어 2017년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 명이고, 캐서린 존슨(Katherine Johnson), 도로시 본(Dorothy Vaughan), 그리고 메리 잭슨(Mary Jackson)이다. 이 세 주인공은 직장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인종차별을 겪는다.

첫째, 캐서린은 직장에서 백인 여자 상사로부터 복장 규정을 안내받는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이고 힐을 신어야 하며 심플한 목걸이이다. 이 복장 규정은 일과 관련이 없음에도 언어로 흑인 여성을 차별한다. 이 외에도 백인 동료들은 흑인과 커피포트 사용하기를 거부하여 유색인종 전용 커피포트를 내놓았다. 더 심한 인종차별의 사례는 캐서린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상사도 있다. NASA STG의 부장인 알 해리슨(Al Harrison)은 캐서린이 날마다 40분씩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다른 건물에 있는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에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STG 건물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을 부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알 해리슨은 캐서린이 참석할 수 없는 펜타곤 회의나 우주선 발사 상황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인물로 인종과 관계 없이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로시는 NASA 유색인종 계산 팀의 리더로 사실상 주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SA의 방침상 유색인종은 정규직인 주임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임시직이다. NASA에 IBM 컴퓨터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접하여 IBM 7090과 포트란을 독학하였다. 이 과정에서 IBM 컴퓨터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쫓겨나는 인종차별을 겪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지만 혼자서는 못 간다고 주장하여 계산원 전원을 IBM 컴퓨터 팀으로 발령받게 한 인물이다. 결국 도로시는 IBM 컴퓨터 랩의 정직원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셋째, 메리는 NASA 유색인종 계산 팀의 일원으로 머큐리 엔지니어팀에 발령받게 된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버지니아 대학 엔지니어 육성 심화 과정을 신청했지만 흑인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하여 대학으로부터 수장 허락을 받아 대학을 다녀서 흑인 여성 최초의 우주공학 엔지니어가 된 인물이다.

이와 같이 이 영화는 흑인 여성들이 겪는 직장에서의 인종차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과 그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일상적 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뉴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일상적 인종주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절대 차별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차별 행동’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종차별 연구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David Williams)는 인종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표준화

된 설문지를 최초로 작성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네덜란드 사회학자 필로메나 에서트(Filomena Esert)의 흑인 이민자 연구 등을 참고해 인종차별이 경찰에게 부당하게 검문을 당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충분히 존경받지 못하는 작은 경험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설문지를 만들었다 [12]. 이 학자는 김승섭 교수와의 대답에서 실제 차별 경험이라 아니라 차별을 경험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인종차별은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들어서 2020년 3월 19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11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국경 폐쇄와 동시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유학 중인 A씨는 트램을 타자마자 서양인 무리로부터 ‘코리아~코로나~’라고 소리를 들었다. 네덜란드에서 교민 B씨는 마트에서 마주친 백인 남자가 자신을 보며 기침을 하더니 얼굴을 가리는 시늉을 했고, 여러 청년들이 자신이 산 물건들을 손가락질하며 피하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가리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도망친 경험을 말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 C씨는 셰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 증상도 없지만 멤버들이 별안간 방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스페인이나 이스라엘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에게 ‘코로나’라고 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3]. 이와 같은 인종차별 사례는 자국민과 이방인인 한국인을 구분짓기를 하여 조롱하고 셰어하우스에서조차도 한국인에게 공간을 내어 주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뉴스 미디어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상적 인종주의의 대상으로 담론화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보았다. 첫째, 구분 짓기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차별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 본질화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글로벌 인재 자원으로 호명하는 것이고, 셋째, 그들을 역차별의 원인으로 삼는 등 문제화하는 방식이다 [9].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

이주자 가정들을 호명하여 구분 짓는데 예를 들어, 다문화 사병,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다.

이 구분 짓기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한 공원에서 흑인 남성이 공원 규정에 따라 개에게 목줄을 매야 한다는 요구를 백인 여성이 거절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백인 여성은 흑인 남성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할 거라는 말까지 하고 경찰에게 흑인 남성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사실 흑인 남성은 백인 여성이 개에게 목줄을 채운 것을 본 뒤, 고맙다는 말을 하며 촬영을 마쳤고,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백인 여성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고 이에 백인 여성은 자신의 언행이 인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있었다며 사과했다 [14]. 이 사례는 피부색으로 인간을 판단하여 흑인은 나쁘다는 선입견을 보인 고전적인 인종주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사례를 보면 단독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가족을 우수한 교육구에서 제외하는 배타적인 구역 지정 정책이 있고 흑인의 부 축적을 방지하는 세금 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일부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고급 교육과정을 배정할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과도한 규율 관행도 있다는 것이다 [15]. 이는 제도적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것이다. 제도적 인종주의는 인종적 서열화가 국가 체제와 제도 속에 기입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차별적 대우가 사회조직과 제도의 운용방식 속에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16]. 이 제도적 인종주의 개념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내부 식민주의에 거주하는 식민지인에 다름없다는 통찰을 제시하였고 인종주의를 개인적 인종차별이나 심리적·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7]. 한 마디로 배타적인 구역 지정 정책과 세금 정책 등은 인종차별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료 분야에서의 인종차별도 있다. 흑인 여성 의사 수잔 무어(Susan Moore)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렘데시비르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받아 사망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자신이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전했다 [18]. 이와 같이 흑인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인종차별을 받은 것이다. 이는 톰스(Tomes)가 주장한 질병의 사슬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사슬은 사람들이 병균의 원인을 해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균 발원지나 특정 계층, 지역 등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는 것이다 [19]. 수잔 무어의 사례는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은 ‘질병의 사슬’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미국에서 한인이 절반 이상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한 예로 뉴욕에서 글렌모어 넘버드(Glenmore Nnumberd)는 83세 한인 할머니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여 체포되었다 [20]. 또 다른 예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이다. 총 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 6명은 동양인 여성이고, 그중 4명은 한인이었다. 범인은 백인 21세였다 [21]. 이 사건에 대해 애틀랜타 출신인 가수 에릭남(Eric Nam)은 자신 역시 혐오의 표적이 되거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종차별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설명하였다 [22]. 이와 같이 한인들은 인종차별 경험이 많았다.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인종차별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접촉 및 폭행 피해, 서비스 거부, 직장 내 차별, 기침 및 침 뱉기, 재산상 피해 및 낙서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언어폭력은 욕설과 혐오 발언으로 편견과 증오와 관련이 있으며, 빌리그(Billig)는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농담이 목표를 조롱하여 비인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23]. 이 농담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약자들을 향한 언어유희 현상으로 나타나며, 비하성 농담은 차별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4]. 이 차별은 생각보다 많고 일상적이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을 당한 장소에 대해 한인들은 주로 식당, 약국, 마켓 등 개인 사업체와 공원, 인도 등 공공 장소에서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 가해자의 인종으로는 백인이 74.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흑인, 히스패닉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 한인들은 법 집행 기관 신고 비율이 극히 낮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알리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25]. 이와 같이 미국에서 한인에 대한 일상적 인종주의가 확산되었고 실제 가해가 이루어질 때 대다수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총기 사건들이 문제가 되었다. 첫째,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페이튼 젠드런(Payton Gendron)이 총기를 난사하여 10명이 사망하였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올린 선언문에서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 파시스트라 설명하고 “가능한 많은 흑인을 죽이겠다”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언문에는 미국 사회의 문화가 유색인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과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 등이 담겨 있고, 그가 버펄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흑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총알을 맞은 13명 중 11명이 흑인이었다 [26]. 이 사건의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미국 대통령 바이든(Biden)은 이날 연설에서 백인 우월주의는 독이고 공포와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혐오스럽고 비뚤어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였다 [27].

둘째, 미국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에게 총 90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5세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Jland Walker)가 사망하였다. 경찰은 제이랜드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서 총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비무장 상태였다. 이 영상을 목격한 시민들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고, 그의 유가족은 “우리는 그저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흑인이나 젊은 남성은 경찰을 마주치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하였다 [28]. 이와 같은 사건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있는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행동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흑인들을 사살한 것이다.

2023년에는 미국 흑인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한국계에 대한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 등이 증가하였다. 첫째,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들은 흑인 청년 니콜스(Nichols)의 차를 세운 후, 그를 차에서 끌어내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차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전기 충격을 가해서 그는 사망하였다. 니콜스 살해는 경찰이 상층과 하층을 불문하고 인종차별과 계급적 증오에 쪼들어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관들은 훈련에서 노동계급 사람을 범법자로 취급하라고 배우기 때문에 지독한 인종차별을 하게 된다. 그들은 무자비한 단속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써 흑인을 범범죄자 또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한다 [29]. 이와 같이 경찰은 흑인을 대하는 방식이 계층에 따라 다르다. 흑인 하층민은 항상 문제 집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30]. 경찰은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인데, 경찰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종차별적 잣대와 생각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제도적 인종주의를 드러낸다. 제도적 인종주의는 경찰의 정상적 치안 업무의 일부로 내재되어 있는 의식되지 않은 인종주의,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저지르는 인종차별을 식별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1].

둘째, 미국 텍사스주 교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에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총격범이 평소 백인 우월주의와 네오 나치 극단적 이념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고 증오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였는데 그는 RWDS(우익 암살단)가 쓰인 휘장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RWDS는 우익 극단주의자, 신나치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서 인기 있는 문구로 알려졌다 [32].

셋째,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상점에서 20대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흑인 3명이 사망하였다. 실제 범인은 부모와 언론,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흑인 혐오 내용을 쓴 성명서를 남겼다고 한다 [33]. 이와 같이 2023년에는 경찰의 폭력,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총기 난사로 인해 흑인들과 한인 교포 일가족이 사망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미국, 유럽 국가들,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유색인종들과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종차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반인종차별 관련 법이나 정책을 더 많이 제정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빈곤율이 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임금 수준이나 자산 규모도 백인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유색인종 밀집 지역의 복지, 교육, 생활 환경 등의 여건은 백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교육에서 불평등은 교사 수 부족, 학교들의 열악함, 재정 지원 부족 등이 나타나며, 학업성취도에서 인종 간 격차를 보인다. 범죄 분야에서는 현재 흑인 수감자가 전체 수감자의 40%를 넘고 유색인종에 집중되는 불시 검문이 있고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 사형집행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민권법이 있고 반인종차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법무부 내에 시민권 분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평등 실

현 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고용과 교육에서 반인종차별을 위한 주요 정책이다 [34]. 이 정책은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들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집단으로서 차별의 결과가 누적되고 사회구조적 차별이 되어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적극적 우대 조치이다 [35]. 이와 같은 법이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인종주의는 확산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반인종차별 관련 법이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사회 영역에서 인식과 관행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누적되어 차별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차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도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실시하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36]. 이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은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 인종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둘째, 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 편견, 차별, 그리고 자유주의 등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인종주의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 한 칼럼에서는 미국의 인종차별 해결 방안으로 자유주의를 제시하였다. 자유주의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법적, 시민적, 도덕적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과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이성과 공감을 통해 편견과 거짓을 몰아내자는 것이다 [37]. 이러한 교육 이외에도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상호문화교육은 타문화에 대하여 상하관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 자체를 동등이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8]. 이 상호문화교육을 확산시켜 온 단체는 유럽 평의회, 유럽연합 유네스코 등과 같은 국제기구이다 [39]. 이 교육은 세계화 시대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하는 교육으로 행해져야 한다.

셋째, 인종차별을 해결하고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선한 사회적 영향을 만들도록 조성해

야 한다.

넷째,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한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미묘한 차별, 과거 트라우마 및 세대 간 트라우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묘한 차별은 편견의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 징후를 구성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의 스펙트럼을 전달한다.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40]. 이 심리적 문제를 방지해서는 되지 않으며 심리센터나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고 심리 치료나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종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에 대해서 살펴 본 후에 영화 《히든 피겨스》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일상적 인종주의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인종주의는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확산되었다. 인종주의는 문화 차이가 중요 요소로 간주되는 신인종주의로 변화하였고, 신인종주의는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NASA에 근무하는 세 명의 흑인 여주인공들이 직장에서 겪는 인종차별을 다룬다. 이 영화는 유색인종 전용 커피포트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등 그녀들의 차별의 경험을 보여 주었고, 유색인종 화장실 간판을 부수는 백인 상사의 모습도 나타낸다. 특히 흑인 여주인공들은 열심히 자신의 일 능력을 함양하고, 차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상사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대사가 있다. 첫째, “함께 오르지 않으면 정상에 못 올라가,” 둘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면 바뀔 수 있는 게 없어,” 셋째,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 대사들은 사

람들 간의 유대감, 발전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 차별을 극복하는 강인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여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모습이야말로 평등하고 밝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일상적 인종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색 인종이나 흑인들에게 언어, 제스처, 폭력, 총기 난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인종차별을 한 것이다. 인종차별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네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인종차별 관련 법이나 정책 제정, 인종주의, 일상적 인종주의, 편견, 차별, 그리고 자유주의 등에 대한 평생 교육, 인종차별 소재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제작,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적 트라우마 치료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상적 인종주의가 없는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References

- [1] Kung Tae Park, *Racism*, Seoul: Chaekesang, 2021.
- [2] Essed, P, *Understanding Everyday racism: An Interdisciplinary Theor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1.
- [3] Theodore Melfi Director, *Hidden Figures*, 20th Century Fox Korea Production, 2016.
- [4]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8E%B8%EA%B2%AC&range=all>
- [5]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B0%A8%EB%B3%84&range=all>
- [6] Nadal, Kevin Leo Yabut, *Microaggressions and Traumatic St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8.
- [7] Hong Seuk Yang, “The Historians’ Turning Sectionalism to Racism in the late 19th Century,” *World History and Culture*, No. 52, pp. 269-301, 2019.
- [8] Ho Yeon Kim, “Racism and Covid-19 - Focusing on the Trend of Racism Research in American Academy of History,” *Dongkuk History Studies*, Vol. 68, pp. 421-463, 2020.
- [9] Beom Seon Kim, and Young Han Cho, “A Study on Banal Racism in South Korea - Focusing on

- News Reports on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65, No. 1, pp. 71-103, 2021.
- [10] Ki Nam Kim and 12 others, *Refugees, Being Subject to Refugeeism*, Seoul: Galmuri, 2020.
- [11] Balibar E,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 New York: Verso, 1991.
- [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2048.html>
- [13]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4850
- [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4457141>
- [1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banality-of-racism-in-education/>
- [16] Woonok Yeom, “Lost Chance? -The Death of Stephen Lawrence and Macpherson Report, Institutional Racism in Britain,” *English Studies*, Vol. 32, pp. 257-280, 2014.
- [17] Karim Murji, “Sociological Engagements: Institutional Racism and Beyond,” *Sociology*, Vol. 41, No. 5, pp. 844-845, 2007.
- [18] <https://newcms.kmu.ac.kr/bbs/kmuhr/5221/109072/artclView.do>
- [19] Tomes Nancy, *The Gospel of Germ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2590009>
- [21] https://ko.wikipedia.org/wiki/2021%EB%85%84_%EC%95%A0%ED%8B%80%EB%9E%80%ED%83%80_%EC%8A%A4%ED%8C%8C_%EC%B4%9D%EA%B2%A9_%EC%82%AC%EA%B1%B4
- [22] <https://www.youtube.com/watch?v=NM4UI9c8NkM>
- [23] Billig, M, “Humour and Hatred: The Racist Jokes of the Ku Klux Klan,” *Discourse and Society*, Vol. 12, No. 3, pp. 267-289, 2001.
- [24] Ji Hye Kim, *A Good Discriminator*, Seoul: Changbi Publications, 2019.
- [25] <https://news.koreadaily.com/2021/05/02/society/general/society/9320823.html>
- [26] <https://news.koreadaily.com/2022/05/15/society/accident/20220515201557518.html>
- [27] <https://www.news1.kr/photos/view/?5376296>
- [28]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4878_35744.html
- [29] <https://wspaper.org/article/28914>
- [30] Lea John, “The Macpherson Report and Question of Institutional Racism,”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9, No. 3, pp. 219-233, 2000.
- [31] Hall Stuart, “From Scarman to Stephen Lawrence,” *History Workshop Journal*, Vol. 48, pp. 187-197, 1999.
- [32]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5081653001>
- [3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715430005169>
- [34] Julia Jiwon Shin, Seori Choi, Romee Lee, Chang Won Lee, and Sojin Yu, “A Study of Anti-Racial Discrimination policy: A Case Study of USA, Canada and Australia,” *IOM MRTC Research Report Series*, Goyang : IOM MRTC, pp. 1-154, 2013.
- [35] Hong Suck Cho, “Analysis and Prospect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garding Equal Protection,” *Public Law*, pp. 113-136, Vol. 33, No. 4, 2005.
- [36] Jae Hee Lee,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ffirmative Action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Social Discrimination,” *Anam Law*, No. 50, pp. 159-197, 2016.
- [37] <https://newspeppermint.com/2020/07/19/the-new-ideology-of-race/>
- [38] Joo Eun Park, “Racism in the Movie 《Green Book》 and Solutions through Discuss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3, pp. 159-165, May 2022.
- [39] Han Up Jang,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ultural Education as a Managerial Model of Cultural Diversity: Focused on intercultural educ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24, No. 3, pp. 19-38, 2019.
- [40] Sung Hae Park,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rt Therapy*, Seoul: Park Young Story, 2023.

※ 이 논문은 2023년도 상명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